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7~8)

1. 한국의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관련

□ [미국 정부 동향]

- (랜들 슈라이버) 미 국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이 결정을 재고할 시간은 아직 있다.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토록 한국에 대한 설득을 계속 하고 있다’ 고 밝힘¹⁾
- ‘미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비효율적’ 이라며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최적이 아니다’ 는 입장을 밝힘.
- ‘한·일 관계의 긴장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줄 뿐’ 이라며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설득할 수 있음을 시사
-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지소미아)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 며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 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²⁾
- ‘(지소미아 유지가)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 호프먼 대변인은 한국 정부에 대한 재고 요청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낙관적’ 이라며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

1) 「미국방 차관보까지 日언론서 지소미아 압박 “한국 계속 설득”」 『중앙일보』 (2019. 11. 7).

2) 「에스피 美국방, 내주 방한…美국방부 "지소미아 문제 해결 바라"(종합2보)」 『연합뉴스』 (2019. 11. 8).